

영통사 성지순례 중단 위기

천태종 "제한조치 안 풀면 우란분절 법회로 끝낼 것"

천태종은 8월 25일 통일부가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 우란분절 법회를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천태종은 이날 영통사 성지순례 후 배포한 '성지순례 중단선언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순전히 종교,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지순례를 통일부가 '변형된 관광'이라는 자의적 급제를 씌워 막대코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러 천태종은 "통일부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제한 방침은 종교적 자유에 대해 철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범불교도와 연합하여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천태종은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 이후 성지순례 정례회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영통사와 선종, 고려민속박물관 등 유적지를 하루 일정으로 시범순례한 이후 지난달부터 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보성 스님 송광사 방장 재추대

조계종립 순천 송광사 방장에 보성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송광사는 8월 31일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보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했다. 45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했으며 73년부터 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조계종립 제5대 방장에 취임.

남동우 기자

인묵 스님 봉선사 주지 선출

남양주 봉선사 주지에 인묵 스님(불교 여산학교학장·사진)이 선출됐다.

봉선사는 8월 31일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121명이 투표한 결과 인묵 스님이 59표를 얻어 차기 주지 후보자로 선출됐다. 화법 스님은 57표를 얻었으며 무효는 5표.



인묵 스님은 1976년 사미계, 7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회암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자재암 주지, 중앙승가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선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관음사 사태 일단락...불씨는 여전

제주 관음사 사태가 일단락됐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측과 조계종 총무원측은 8월 28일 관음사와 보현사 검수인계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저지하던 관음사 신도회 및 제주불자연합회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몽 스님·총무원, 관음·보현사 검수인계 완료 신도회·제주불자聯 "불법 폭력 침탈" 반발 계속

▲관음사 문제 왜 불거졌나=문제의 발단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이하 중앙선거관리위)는 당시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구선거위)가 산중총회 개최 시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며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은 2007년 1월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직무대행기간 동안 어법한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 주지를 선출할 것'을 서약 받았다. 그러나 교구선거관리위는 산중총회를 공고하면서 후보자 자격을 '관음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구선거관리위는 4월 20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진명 스님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여기에 맞서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4일 시몽 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도 5월 3일 제176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산중총회 무효 결정을 내렸다.

진명 스님이 시몽 스님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주지직무집행정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문제는 사회법으로 번졌다. 서울 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6월 27일자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도 8월 17일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사법부도 시몽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집)은 8월 17일 제52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종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스님에게 '별

인',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향후 전망은=시몽 스님은 검수인계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상처를 치유하고 지난날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기 위해 제주불자연합회 및 신도들에 대한 형사상의 법적 소송을 즉각 취하하겠다"며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조계종 총무원도 대변인 기획실장 승원 스님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떠나 제주의 모든 스님과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총무원은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음사 신도회와 제주불자연합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관음사 불법 폭력 침탈 사건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 △경찰의 수사방관과 일방 편들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단호히 대처할 것 △관음사를 되찾는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글통일법요집’ 다시 다듬어야”

포교정책연찬회서 '오역·현상성 결여' 문제점 지적

조계종은 2006년 8월 의식의 한글화 대중화를 위해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다. 3년 2개월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글통일법요집>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이 <한글통일법요집> 활성화 를 위해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성은 정우서적 대표는 '문학적 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 주제발제에서 "우리에 대한 오역 문제와 현상성 결여로 일선 법회 현장에서 우리말 의식이 외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압축적이며 다의적이고 운

문화된 기존의 한문과는 달리 우리말로 풀었을 때 길어지고 운율성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암송하기 어려워지고 의식이 길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성은 대표는 <한글통일법요집>과 한글법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한글로 의식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의 속하지 않음 △한글번역의 비통일성 △우리말 번역 문제 등을 이유로 한글의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글의식을 사용하다 중단했다 고 답변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합송이 어렵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성은 대표는 "현재의 불공과

천도 의식은 존음을 다루는 현대인들에게 낯설다"며 "의식의 차례와 선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율문의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법과 이론을 정리해야 한다"며 "시제, 연결어미, 율격과 용어의 해석 등 불교 정서에 맞는 현대 우리말을 갖고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형 한국고전번역원구회 회장은 '음악적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 주제발제에서 "한글통일법요집에 담긴 법문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집단을 결성하고, 이들이 검증해 직접히 재판된 결과를 시연할 수 있는 시연집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산하의 법회 연구단과 법제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의식을 통해 보편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상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문의 02-2004-8279

바로 잡습니다

본지 643호 9면 '선지식을 찾아서' 항과 스님 이력 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홍법사 관련 소위원회 구성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홍파)는 8월 2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부 홍법사 문제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사무총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지원(조계종 사회부장)·양산(조계종 前 사회부장)·법종(보문종 총무원장)·송정(미륵종 총무원장) 스님과 진각종 총무부장 수성 정사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법사를 관음종 사찰로 등기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은 "홍법사 취득 과정이 한일불교교류와 관계가 있으므로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지리산 약초 체험 참가자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가 지리산 일대를 찾아 약초를 채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동방대학원대는 9월 8일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를 찾아 야생 약초를 관찰하고 일대의 문화재를 탐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나광영 교수가 '약초'를 주제로 한 현장강의를 실시하며, 함양 삼립숲과 한방 휴양지를 방문하고, 인산죽염연구소, 대원사, 검외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언론문화사 시상요강 발표

조계종 총무원은 '제15회 불교언론문화사' 후보자 및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불교언론문화사는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TV, 라디오, 신문, 출판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작품을 공적에서 뛰어난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분야는 '불교언론문화사' 대상을 비롯해 불교언론인상, TV, 라디오, 신문, 출판 각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 및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창작등경연대회' 개최

천태종 총무원은 전국 말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5일 '제1회 창작등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천태종의 이미지를 향상화한 것으로 창작성과 후대성,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에 대해 시상하며, 선정된 우수 작품은 2008년도 연등축제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戒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대법회 行

귀의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범망경의 계율을 수지하며 불굴의 승단이 되고져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며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함을 제방에 고합니다.

本師佛和尚 석가모니불. 교수아사리 미륵존불. 갈마아사리 용종상존왕불

本證戒和尚 滅空. 銖性. 飛潭 大和尚 本傳戒和尚 三僧律 律師

尊證아사리 龍雲. 賢覺. 法壯. 法天. 正安. 正守. 石長 和尚

■ 행사일자

(세존승화 3034년 첫해년)

입제일 : 2007년 9월 6일 (음. 7월 25일)

회향일 : 2007년 9월 7일 (음. 7월 26일)

■ 문의

총무원 ☎ 055)338-0089(김해) / 총무부 010-8722-5177

법계고시원 017-554-1402 / 총무국 011-9542-1711

※ 전종도 각 15교구원 별도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니 마땅히 구족계계를 가지면 능히 여러께서 찬탄하시도다. 승가단체는 율을 행하여 도덕을 지키며 세상의 참 지도자가 됩니다.

大韓佛敎 三寶 曹界宗 총무원